

STRATEGY 21

통권40호 Vol. 19, No. 2, Winter 2016

## 중국의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

박 창 희\*\*

---

I. 서론

II. 중국의 국가전략 전환 : 대륙에서 해양 중심 전략으로

III. 중국의 해군력 증강 :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 능력 확보

IV.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

V. 결론

---

\* 본 논문은 제17회 함상토론회(2016년 6월 3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후 발생한 북한 5차 핵실험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 I. 서론

1892년 알프레드 마한은 미 해군전쟁대학(Naval War College) 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우리 미국은 새로운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음,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해군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sup>1)</sup> 왜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마한의 답은 분명하다. 미국은 강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지배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한에게 있어서 해군력은 해운력 및 해외기지와 함께 해양력(sea power)을 구성하는 3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강대국 부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sup>2)</sup>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한이 해양력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지 약 100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류화칭(劉華清) 제독이 인민해방군 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을 제시했다.<sup>3)</sup> 이후 중국해군은 인민전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채택한 ‘연안방어(沿岸防禦)’ 위주의 전략개념을 ‘근해방어(近海防禦)’로 전환하고, 이에 부합한 전력을 구비하고자 해군력을 현대화하기 시작했다.<sup>4)</sup> 서구에 비해 20-30년 기술수준이 뒤떨어진 중국은 1990년대 소련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첨단 해군 무기를 도입했고, 21세기에 이르러 주요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시

1) Alfred T. Mahan,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 (Boston, 1906), p.229. Quoted in Philip A. Crowl, “Alfred Thayer Mahan: The Naval Historian,”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477.

2)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p.71.

3)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해군사령원을 지낸 류화칭 제독은 1988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하면서 3도련 개념을 제시하고 2010년까지 1도련, 2025년까지 2도련, 그리고 2050년까지 3도련으로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67.

4) Paul H. B. Godwin, “From Continent to Periphery: PLA Doctrine, Strategy and Capabilities Towards 2000,” David Shambaugh and Richard H. Yang, eds., *China's Military in Trans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205.

작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진(晉)급 탄도미사일탑재핵잠수함(SSBN)과 이에 장착되는 JL(巨浪)-2 SLBM 개발, 랴오닝(遼寧) 항모의 완성과 추가적인 독자 항모의 제작, 그리고 구축함과 호위함 및 탑재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해군력 증강에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가? 장차 중국은 이러한 해군력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지역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지역불안정 및 해양분쟁의 근원을 제공할 것인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가져올 불안정성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은 어떻게 해양안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가?

우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1890년대 마한의 주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도 해양 중심의 국가전략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중국은 중국꿈(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강대국 부상의 꿈을 갖고 있었다.<sup>5)</sup> 이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민족이 그토록 열망했던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려는 중화민족주의와 결부된 것으로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목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중심의 지정학 전략을 채택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지난 25년 동안 추진한 해군력 현대화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해양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 동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지역안보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도록 한다. 필자는 우선 중국이 해양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한 배경과 의도,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무기체계별로 최근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지역 국가들 간에 가능한 해양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Peter Ford, "Decoding Xi Jinping's 'China Drea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26, 2013.

## Ⅱ. 중국의 국가전략 전환 : 대륙에서 해양 중심 전략으로

### 1. 중국 해양전략의 기원과 전개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륙국가였다. 비록 명(明)대에 정화(鄭和)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 해양원정을 실시하며 아프리카 연안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한 적이 있었으나, 그 기간은 30년을 넘지 않았다.<sup>6)</sup> 청(淸) 말기 중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홍장(李鴻章)을 중심으로 북양함대(北陽艦隊) 건설에 나섰다. 이는 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중국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대륙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이 한국전쟁 개입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했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1985년까지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여 인민전쟁(人民戰爭)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유사시 해양을 포기하고 대륙에서 지구전을 추구한다는 개념이었다.<sup>7)</sup>

중국이 해양의 가치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 시기에 해저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기 해양자원을 확보하고자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암초, 바위섬, 산호섬, 모래톱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사군도 분쟁 당사국들은 남사군도 지역의 무주지를 점령하기 시작하여 1973년에 필리핀은 5개의 섬을 장악했으며, 베트남은 11개의 섬을 점령하고 자국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뒤떨어졌다고 판단한 중국은 1974년 1월 서사군도 일대에서 베트남 해군과 교전을 벌여 베트남 해군 18명이 사망하고 165명이 실종되는 손실을 가하면서 서사군도를 장악했다.<sup>8)</sup> 다만 이 시기 중국은 해군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남사군도에까지

6) 박창희, 『중국의 전략문화 : 전통과 근대의 모순과 부조화』(파주 : 한울, 2015), pp.104-111.

7) You Ji, *The Armed Forces of China* (New York: I.B.Tauris, 1999), pp.163-164.

8)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China: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272. 1978년 중국은 서사군도에서 가장 큰 영흥도(永興島, Woody Island)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하이난다오(海南島)와 항공노선을 설치했다.

진출하여 섬을 점령하지는 못했다.

1982년 4월 유엔해양법(UNCLOS)이 채택되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 그리고 대륙붕 주권에 대한 틀이 확립되자 각국은 해양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87년 초부터 중국은 일부 개선이 이루어진 해군력을 투입하여 남사군도의 영서초(永署礁, Fiery Cross Reef), 화양초(華陽礁, Curteron Reef), 남훈초(南薰礁, Gaven Reef)를 점령했다. 1988년 3월 중국해군 구축함이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 인근 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하자 베트남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화물선과 상륙정 등 3척을 파견하고 43명의 병력을 적과초에 상륙시켰다. 중국도 이 지역에 두 척의 구축함을 증원하고 적과초에 58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베트남 군과 대치했다. 양국 병력들이 서로를 밀어내려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에 사격이 이루어졌고, 이는 해군함정 간의 교전으로 확대되었다. 화력 면에서 우세한 중국해군은 3척의 베트남 함정을 모두 격침시키고 72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끝에 적과초를 점령했으며, 그해 3월 말까지 6개의 다른 산호섬을 장악했다.<sup>9)</sup>

1980년대 후반기 남중국해로 진출을 서두르고 해양전략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1세기 이전까지 대륙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 첫째, 소련/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까지 중국은 대륙의 북쪽으로부터 가해지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했으며, 소련이 붕괴하고 등장한 러시아와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전까지 해양으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6년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합의하고 2001년 7월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것은 비로소 중국이 해양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0)</sup>

둘째, 내륙의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양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특히,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중국은 냉전기 이들 국가들과 국경지역에서 전쟁 혹은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으며, 다시 이러한 분쟁이 고조될 가능성으로 인해 국가 역

9)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China*, pp.294-295.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10개의 섬을 장악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24개, 필리핀 7개, 말레이시아 6개, 대만이 1개의 섬을 장악하고 있다.

10) Elizabeth Wishnick, “Russia and China: Brothers Again?” *Asian Survey*, Vol. 41, No. 5 (2001), p.803.

량을 해양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러시아, 베트남, 중앙아시아 3개국 등과 역사적으로 골치 아팠던 육지에서의 국경선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sup>11)</sup>

셋째, 중국이 보유한 해군력이 미약했다. 중국군은 냉전기 동안 인력에 의존하는 지상군 중심의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해양을 통제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신형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약 25년 동안 해군력 증강에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최근에는 주요 함정 및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sup>12)</sup>

넷째, 무엇보다도 중국은 최근까지 해양중심의 국가전략을 갖지 않았다. 비록 1980년대 후반 해군력 건설 및 해군운용 개념을 제시했으나, 국가차원에서 해양을 국가발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서지 않았다. 즉, 마한이 제기한 해양력의 3요소인 해군력, 해운력, 그리고 해외기지를 연계하고, 이를 국가전략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1세기에 오면서 중국이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추구하며 해외기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sup>13)</sup>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기한 것은 비로소 중국이 해양전략을 국가차원의 전략에서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이 해양으로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 50년 동안 해양진출을 제약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해양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오면서야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11) 박창희, “중국의 영토분쟁 정책,” 『2013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년 4월, pp.272-273.

12) 이 과정에서 1991년 걸프전과 1996년 대만해협 위기는 중국의 해군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31, 2016, p.5.

13) ‘진주목걸이’란 중국이 확보하려는 항구를 잇는 모습을 지칭한 것으로, 이러한 항구로는 미얀마의 카윅푸(Kyaukpyu) 및 코코군도(Cocos Islands),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세이셸(Seychelles) 군도이다. 중국은 이러한 지역에 중간기착지, 감청기지, 항만시설 등을 이미 완공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ristopher J. Pehrson,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Carlisle: SSI, 2006), p.10; Rahul Bedi, “India Shores Up Island Defenses to Counter China Buildup,” *Jane's Defense Industry*, February 11, 2010, <http://jdet.janes.com/JDIC/JDET/>

## 2. 21세기 해양 중심의 국가전략

중국이 해양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지도부는 ‘해양강국건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해양굴기(海洋崛起)’가 없이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 보고에서 중국은 해양에서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임무”임을 역설했다.<sup>14)</sup>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일찍부터 그들이 제기하는 ‘핵심이익(核心利益)’ 발언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이전까지 중국이 주장한 핵심이익은 대만, 신장, 티베트 문제에 한정되었으나, 2009년에 처음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해양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에 대한 주장을 강화해 오고 있다.<sup>15)</sup> 매 2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국방백서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은 해양영토분쟁에 대해 매우 낮은 어조로, 심지어 2002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적도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양영토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점차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6)</sup>

14) “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開幕 胡錦濤作報告,” 『人民網』, 2012. 11. 8.

15)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2009년 7월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미 외무장관 클린턴에게 미 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에는 주권 및 영토보전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Dai Bingguo: The Core Interes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Digital Times*, August 7, 2009; Edward Wong, “China Hedges Over Whether South China Sea Is a ‘Core Interest’ Worth War,” *The New York Times*, March 30, 2011.

1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년 4월.

〈표 1〉 중국국방백서에 나타난 해양안보에 대한 인식

국방백서	내용
2000년	남중국해지역에서의 중국권익을 잠식시키려는 돌발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타 지역 국가들도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2년	남중국해 지역정세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련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당사자간 행동선언”을 채택했다.
2004년, 2006년	미언급
2008년	영토와 해양이권(海洋利權)의 분쟁은 여전히 심각하다.
2010년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海洋權益)을 수호하는데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일부 인접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련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를 확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어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관련 일부 연안국가들은 도발적 행위를 하고 중국의 섬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참견하기 바쁘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항공 및 해양 감시와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중국 주변에서의 안보 및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은 2013년 1월 당 중앙 정치국 집단학습을 통해 “우리는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하되 결코 핵심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으며, 7월 30일 집단학습에서도 “정당한 권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국가 핵심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며 해양에서의 국익수호 결의를 분명히 했다.<sup>17)</sup> 2013년 4월 발간된 중국국방백서는 해양이야말로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해양을 개발, 이용, 보호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라고 언급했다.<sup>18)</sup> 이러한 중국의 결연한 의지는 2014년 이후 보여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단호한 대응, 조어도(釣魚島) 주변 해역 및 상공에서의 군사적 대치, 서사군도 인근 베트남 EEZ에서의 석유시추 강행, 그리고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 섬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도발적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2015년 5월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기존의 대륙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해양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것임을 밝혔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중국국방백서는 다음과 같이 언

17) 『新華網』, 2013년 1월 28일; 『연합뉴스』, 2013, 8, 1.

18)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년 4월.



급하고 있다.

해양은 항구적 평화와 지속적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가 있다. 육지가 해양보다 중요하다는 전통적 사고는 버려야 하며, 해양과 대양을 관리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해양협력에 참여하여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sup>20)</sup>

이와 함께 국방백서는 “중국은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비례한 현대 해양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전략적 해상교통로(SLOC) 안전 및 해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마한의 해양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해양 중심의 국가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국민족의 염원이자 국가목표인 강대국 부상을 위해 먼저 ‘해양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해군력을 증강함으로써 해양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 중심의 국가전략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해양을 지배할 수 있는 중국해군의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중국해군은 최근 전략개념을 수정하며 활동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중국해군은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로 전환했으며, 2015년 5월 공개한 국방백서에서는 다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遠海護衛)’라는 전략개념을 제시하면서 해군의 활동범위를 원해로까지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해군은 근해에서의 ‘해양통제(sea control)’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대항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해양거부(sea denial)’를 뛰어넘어 해양통제력을 갖추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 중국해군사령원 장련중(張連忠) 제독은 “우리는 과거 중국이 제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바다를 통해 침략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군력이 약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다.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21)</sup> 청 말기 해군이 약화된

1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年 5月.

2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年 5月.

중국은 서구열강의 침략 대상이 되었고, 그 침략은 모두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의 근해방어는 중국의 안보에 중요하다. 근해를 통제함으로써 대만의 독립을 방지하고 통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양분쟁 발생 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sup>22)</sup>

셋째,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국가발전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무역의 95% 이상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SLOC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미국과의 분쟁으로, 혹은 국제해적이나 테러집단에 의해 SLOC가 차단될 경우 중국의 경제는 즉각 마비될 수밖에 없다. 2008년 말부터 아덴만에 구축함을 파견하여 SLOC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up>23)</sup>

넷째,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단순히 해양영토분쟁 등 핵심이익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sup>24)</sup> 해외의 항구를 확보하고 해군을 주둔시키며 SLOC 안전을 자국의 힘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권위를 높이고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이제 중국은 전략의 방향을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화된 해군력은 국가안보 및 국가발전 이익의 확보는 물론, 강대국 부상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

### 3. ‘일대일로’ 구상과 ‘일로’의 지정학적 의미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대전략으로 모습을 갖추가고 있다.<sup>25)</sup>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양실크로드를 합친 개념

21) Tai Ming Cheung, “Growth of Chinese Naval Power: Priorities, Goals, Missions and Regional Implications,” *Pacific Strategic Papers*, No. 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p.3. 이춘근, “지정학적 부활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Strategy 21』, Vol. 18, No. 1 (Spring 2015), p.19에서 재인용.

22) You Ji, *The Armed Forces of China*, p.167.

23)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September 9, 2015, pp.8-11.

24)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68.

으로 중국식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일대(一帶)’는 대륙중심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철도를 연결하여 중국-몽골-아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유럽, 중국-중남아시아 등 3개 국제경제 협력 회랑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종의 ‘철의 리본’, 즉 유라시아 국가들을 철도로 연결하여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해야 세계지배가 가능하다는 매킨더(Halford Mackinder)의 ‘심장부이론(heartland theory)’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킨더의 ‘심장부이론’은 20세기 초 제시된 대륙중심의 지정학이론으로 심장부는 유라시아 내부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장이다.<sup>26)</sup>

반대로 ‘일로’는 해양중심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아라비아해-아프리카 연안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앞에서 언급한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를 장악해야 세계지배가 가능하다는 스파이크맨(Nicholas Spykman)의 ‘주변부이론(rimland theory)’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파이크맨의 ‘주변부이론’은 1944년 제기된 해양지정학이론으로 주변부를 장악해야 유라시아를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27)</sup>

결국, ‘일대일로’는 대륙 및 해양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중국의 대전략적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식의 ‘복합적 지정학’이다. 그렇다면 해양지정학을 이루고 있는 ‘일로’, 즉 해양실크로드 구상은 전략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중국의 ‘일로’ 개념은 미국의 해양전략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아태지역 5개의 동맹국과 베트남, 인도 등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전통적인 해양지정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희석시키고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국 중심의 해양벨트를 형성하고자 한다.

25) “Chronology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Xinhuanet*, March 28, 2015.

26) 이는 당시 철도의 등장으로 해양보다 대륙의 우세를 예상한 것으로 매킨더는 심장부로 향하는 관문인 ‘동유럽’을 먼저 장악해야 심장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히틀러의 유럽팽창을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다.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of the World System*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pp.13), pp.13-19.

27) 주변부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해양을 접한 주변지역으로, 스파이크만은 교통과 교역, 그리고 산업 잠재력 측면에서 대륙보다 주변부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of the World System*, pp.22-23.

즉,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홍해와 아프리카를 잇는 주변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해양을 연하는 주변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중국해 지역은 중국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 연안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남사군도 지역의 천연자원을 확보함은 물론, SLOC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대만의 서쪽 해역을 강화함으로써 양안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으로서는 이를 발판으로 하여 세력투사를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중국이 최근 하이난다오의 남단에 위치한 썬야(三亞)지역을 전략적 항구로 개발하고 남사군도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은 남중국해를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sup>28)</sup>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건설은 해양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지정학적 구상이다. 즉, 중국은 해군력이 뒷받침해주는 해상무역로를 완성하고 연안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Ⅲ. 중국의 해군력 증강 :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 능력 확보

#### 1. 해군전략 및 군사력 건설 개념

중국해군의 임무는 해상안보와 영해주권을 보호하고 해양이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9)</sup>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대만 유사에 대한 군사적 대처, 둘째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장 강화 및 분쟁 가능성 대비, 셋째로 중국에서 페르시아 만까지 이르는 SLOC 보호, 넷째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다섯째로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을 들

28) David Tweed, "China's Clandestine Submarine Caves Extend Xi's Naval Reach," *Bloomberg*, October 31, 2014.

2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년 4월.

수 있다.<sup>30)</sup>

이를 위한 해군의 전략은 2015년 5월 국방백서에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로 전환되었다.<sup>31)</sup> 기존의 ‘근해방어’에 ‘원해호위’가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서 근해란 대체로 류화칭 제독이 제기한 제1도련, 즉 일본열도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다.<sup>32)</sup> 여기에 중국이 ‘원해호위’를 추가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근해에서의 방어만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해양이익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즉, 중국은 영해주권을 넘어서 SLOC 보호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해양이익을 수호하려 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은 ‘근해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근해에 대한 해양통제 혹은 해양우세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해군은 기본적으로 근해에서의 해양통제력을 강화하고 원해에서의 SLOC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원해에서도 해양통제 또는 해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다.

중국해군의 군사력 현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33)</sup> 첫째, 해군 전체 무기체계에서의 현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함탄도미사일(ASBM), 대함순항미사일(ASCM), 지상공격순항미사일(LACM), 대공미사일(SAM), 기뢰, 해군항공, 무인기, 잠수함, 항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상륙함,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C4ISR 체계 등에서 다 같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둘째,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된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도입하면서 구형을 도태시키고 있다. 셋째,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다른 무기체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합동성 및 통합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인 ‘정보화된 군 건설’이라는 방침과 부합한다.

30)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7.

3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년 5월. 1989년 3월 중국해군부사령관 장서우싼(張守三)에 의하면 ‘근해’란 대륙붕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물론, 중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이러한 해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중국의 영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근해방어는 중국해군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제1도련 이내 해역에서 법적 권리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황병무, 『신중국군사론』(서울 : 법문사, 1995), p.154 참조.

32) Bernard D. Cole, “The PLA Navy and ‘Active Defense,’” Stephen Flanagan et al., eds.,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China in Transition* (Washington, D.C.: NDU Press, 2003), p.137.

33)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5.

넷째, 전략적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함으로써 생존성이 보장된 JL-2 SLBM 48발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섯째,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현재의 전력으로 서태평양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원해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 항모를 추가로 도입하고 항모단을 구성할 경우 무력투사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다.

## 2. 해군력 건설 동향

### 가. 항공모함 전력

중국은 2012년 8월 해군으로 인도한 라오닝(遼寧) 항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 항모는 배수량 약 6만톤의 중형항모로 2,000여 명의 승무원과 24대의 J-15 전투기, 6대의 대잠헬기, 4대의 공중조기경보헬기, 그리고 2대의 구조헬기를 포함해 약 36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미 항모가 통상 10만톤으로 6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중국의 항모는 미 항모가 보유한 전자전기를 탑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함재기가 이륙할 때 스키점프를 이용해야 하므로 무장 및 연료적재가 제한되어 함재기의 전투반경과 전투력 발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전력은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30년까지 2척 이상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직제 개념, 즉 작전, 교육, 그리고 정비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3대의 항모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오닝 호가 훈련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항모는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건조되고 있는 추가 항모도 약 6만 5천톤 혹은 7만톤급의 중형항모로 스키점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핵항모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sup>35)</sup> 이 외에도 중국은 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로 J-15과 별도로 수직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왜 항모를 보유하려 하는가? 적어도 대만 문제와는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만은 대륙으로부터 항공기의 작전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모 보유는 첫째로 무력투사를 위한 것이다.

34)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18-20.

35)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20-22.

즉, 외국에 중국의 해양력을 과시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 국가를 강압할 수 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해에서 해적으로부터 해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할 수도 있다. 둘째는 중국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항모는 예로부터 강대국의 상징인 만큼, 중국이 지배적인 지역강국이자 주요한 세계강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의 영토주권 및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남사군도 등 분쟁 가능 지역에서 가급적 미군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 하겠지만, 교전이 불가피할 경우 항모전단은 해양에서의 거부 또는 우세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나. 잠수함 전력

최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Type 094 진(晋)급 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SSBN), Type 093 상(商)급 원자력잠수함(SSN), 그리고 공격용잠수함(SS)으로 Type 039A 위안(元)급, Type 039/039G 송(宋)급, Type 032 청(淸)급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진급 SSBN은 11,000톤급으로 JL-2 SLBM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 7,400km로 핵탄두 3-4기를 탑재한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미사일(MIRV)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보유한 4척의 진급 잠수함 외에 SSBN 1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Type 096 신형 SSBN을 개발하고 있다.<sup>36)</sup> 기존 한(漢)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상급 SSN은 7,000톤급으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YJ-18 ASCM을 탑재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520km로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에서 장착하고 있는 SS-N-27 Sizzler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은 상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Type 095 신형 SSN을 개발하고 있다.

공격용 잠수함인 위안급은 3,600톤급으로 Type 033 로미오급 및 Type 035 밍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중국해군에서 공기불요체제(air-independent propulsion)를 처음 적용한 잠수함으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6개의 어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YJ-18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송급 잠수함은 2,250톤급으로 사거리 15km의 Yu-4 어뢰, 사거리 80km의 YJ-8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24-36

36)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May 2016, p.58.

기의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 밍(明)급 잠수함은 2,100톤급으로 로미오급을 대체하기 위해 196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개량된 현대적 밍급 잠수함으로는 1990년대 도입한 Type 035G와 21세기 도입한 Type 035B가 있다. 최근 도입된 밍급 잠수함은 대잠전 기능이 추가되었고, 주요 무기체계로는 Yu-3 어뢰와 LACM 등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2012년 선보인 칭급 잠수함은 배수량 6,60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의 용도는 해군무기체계 시험용으로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무인체, SBLM, ASCM, LACM, SAM, 탈출장비 등을 시험하고 있다.

〈표 2〉 중국해군 신형 잠수함 도입 현황

구분	진급 SSBN	상급 SSN	공격용 잠수함(SS)					계
			킬로급	밍급	송급	위안급	칭급	
1995			2	1				3
2000			4	7	1			12
2005			11	9	11			31
2010	2	2	12	9	13	4		42
2015	4	3	12	9	13	14	1	56

\* 이 외에 구형 잠수함은 시아급 1, 한급 3

중국의 신형 잠수함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구형 잠수함은 시아(夏)급 1대와 한급 3대에 불과하다. 냉전기 보유하고 있던 골프급 1대, 로미오급 85대, 위스키급 21대가 모두 퇴역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은 총 60대이며, 이 가운데 4척을 제외한 잠수함은 1990년대 이후 취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잠수함들은 소음이 커서 적의 탐지에 취약하다는 평을 들어 왔지만, 새로 도입되는 잠수함들을 이러한 취약성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도입된 상급 SSN은 소음은 미국의 Los Angeles급이나 러시아의 Akula급과 유사한 110데시벨(dB)로 알려져 있다.<sup>37)</sup>

37) Andrew S. Erickson and Lyle J. Goldstein, "China's Future Nuclear Submarine Force: Insights from Chinese Writing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0, No. 1 (Winter 2007), p.67.



## 다. 구축함

중국의 신형 구축함은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로부터 1990년대 말부터 도입한 4척의 소브레메니급 외에 자체 생산한 구축함으로 Type 052A 뤼후(旅湖), Type 051B 뤼하이(旅海), Type 051C 뤼저우(旅洲), Type B/C/D 뤼양(旅洋)급이 있다.

<표 3> 중국해군 신형 구축함 도입 현황

구분	소브레메니	뤼후 (052A)	뤼하이 (051B)	뤼양 I (052B)	뤼저우 (051C)	뤼양Ⅱ (052C)	뤼양Ⅲ (052D)	계
1995		1						1
2000	2	2	1					5
2005	3	2	1	2		2		10
2010	4	2	1	2	2	2		13
2015	4	2	1	2	2	6	3	20

\* 이 외에 구형 구축함으로 뤼다(旅大)급 6척이 있음.

뤼후급은 중국해군의 첫 현대화된 구축함으로 4,800톤급이며 항속거리는 5,000해리이다. 사거리 180km인 YJ-83 ASCM과 사거리 15km에 요격고도 6km인 HQ-7 대공미사일, 그리고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다. 뤼하이급은 뤼후급 개량을 위해 건조된 실험용 함정으로 배수량은 6,100톤, 항속거리는 14,000마일로서, YJ-83 대함미사일, HQ-7 대공미사일, 어뢰, 대잠로켓체계 등을 장착하고 있다.

뤼양 I 은 6,500톤급 다목적 미사일 구축함으로 방공능력을 보유한 첫 함정이다. YJ-83 ASCM, 요격고도 50km인 SA-N-12 Grizzly 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1대의 헬기를 탑재하고 있다. 뤼저우는 7,100톤급으로 선체는 뤼하이와 동일하나 10-27km 요격고도를 가진 러시아제 S-300FM 대공미사일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스텔스 기능이 약하고, 가스터빈이 아닌 증기터빈을 사용하여 엔진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후 이를 보완한 뤼양 II로 대체되었다.

뤼양 II는 7,000톤급으로 사거리 280km인 YJ-62 ASCM, 사거리 200km에 요격고도 27km의 HHQ-9 장거리 대공미사일, 그리고 사거리 1,800km의

HN-2 LACM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1대의 헬기를 탑재하고 있다. 뤼양Ⅱ는 진정한 장거리 방공능력을 가진 첫 함정으로 여기에 배치된 HHQ-9 대공미사일은 마하 4.2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360도를 감시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다와 연동하여 발사가 가능하다. 뤼양Ⅲ는 7,500톤급으로 YJ-18 ASCM, HHQ-9 장거리 대공미사일, CJ-10 LACM, CY-5 대잠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1대의 헬기를 탑재하고 있다. 중국의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뤼양Ⅲ는 뤼양Ⅱ와 마찬가지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다를 장착하고 있으며, 신형 수직발사체계(VLS)를 적용하여 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 대잠미사일, 대함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 뤼양Ⅱ는 사거리 216km인 YJ-62 ASCM을 장착했으나, 뤼양Ⅲ의 경우 사거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난 YJ-18을 장착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해군은 총 10척의 뤼양Ⅲ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국은 뤼양Ⅲ 구축함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배수량 약 10,000톤의 Type 055 다목적 순양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순양함은 이지스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함대의 방공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특히 항모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96개의 VLS를 장착하고 다양한 무기체계를 보유함으로써 방공임무 외에도 미사일방어, 반위성(ASAT)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신형 구축함은 총 26척 가운데 20척으로 77%에 달한다. 이는 2010년 65%, 2005년 50%에 비교할 때 중국해군이 매우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라. 호위함

중국해군의 신형호위함은 Type 053H2G 장웨이(江衛) I, Type 053H3 장웨이Ⅱ, Type 054 장카이(江開) I, Type 054A 장카이Ⅱ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함정들은 기존의 Type 053 장후급에 비해 대공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중국해군은 최신형 호위함인 장카이Ⅱ의 생산을 계속하여 늘리고 있다.

장웨이 I은 2,400톤급으로 항속거리는 5,000해리이며, YJ-83 ASCM, HQ-61 대공미사일, 어뢰 발사기, 대잠전용 로켓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4척을 도입했으나, 장웨이Ⅱ급이 개발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다. 장웨이Ⅱ는 배

수량과 항속거리 면에서 장웨이 I 과 동일하며, YJ-83 ASCM, HQ-7 대공미사일, 어뢰관, 대잠로켓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장카이 I 은 장웨이 II 를 대체하며 두 척 도입되었다가 장카이 II 가 도입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다. 3,900톤급으로 항속거리는 8,000해리이다, YJ-83 ASCM, HQ-7 대공미사일, 대잠어뢰, 대잠로켓 등을 장착하고 있다. 최신형 호위함인 장카이 II 는 장카이 I 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HQ-16 대공미사일, C-803 대함/대지 순항미사일, 어뢰, 대잠로켓발사관, 디코이로켓발사관 등을 장착하고 있다.

〈표 4〉 중국해군의 신형 호위함 도입 현황

구분	장웨이 I	장웨이 II	장카이 I	장카이 II	계
1995	4				4
2000	4	6			10
2005	4	10	1		15
2010	4	10	2	7	23
2015	4	10	2	19	35

\* 이 외에 구형 호위함으로 장후(江湖)급 13척이 있음.

중국의 신형 호위함은 총 48척 가운데 35척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중국해군은 상륙작전을 위해 배수량 18,500톤의 Type 071 유자오급 대형상륙함을 3척 확보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두 척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Type 081 상륙함은 20,000톤급으로 전 갑판이 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38)</sup> 또한 중국은 Zubr급 공기부양상륙정을 2013년 5월 우크라이나로부터 4척 도입한 바 있으며, 1,300톤급 Type 056 장다오급 초계함을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27척 도입하여 대양에서의 대규모 해전은 아니지만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EEZ 초계, 연안작전, 대해적작전 등에 대비하고 있다.<sup>39)</sup>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1도련 이내의 근해를 통제하는 것과

38)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35-38.

39)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31-33.

해양실크로드를 연하는 SLOC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원해 지역에 대한 해양통제 혹은 해양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IV.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

### 1. 지역안보에의 함의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의 군비경쟁 양상과 흡사하다. 1888년 29세에 독일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유럽의 세력균형을 모색했던 비스마르크의 ‘대륙정책(continentality policy)’을 폐기하고 1897년 ‘세계정책(world policy)’을 선언하며 해외 식민지 건설 및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독일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바그다드 철도를 건설하며 중동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위협을 느껴 해군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전통적 패권국인 영국은 독일이 주도한 ‘삼국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및 러시아와 ‘삼국협상’을 체결하여 대립했다. 결국 독일의 해군력 증강과 유럽에서 해군 군비경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유럽 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전쟁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sup>40)</sup>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해양 중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 첫째, 지역 내 해군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중국해군의 전력증강 추세를 보면 단순한 현대화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중국해군이 도입한 현대화된 무기의 비율을 보면 잠수함의 경우 93%, 구축함은 77%, 호위함이 73%로 매우 높다. 이에 미국은 2012년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을 내놓고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방위백서를 통해 앞으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호위함 5척, 조기경보기 4척, 고정익 초계기 P-1

40) 백경남, 『국제관계사』(서울 : 법지사, 1987), pp.94-103.

23대 등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이 절제되지 않은 각국의 해군력 증강 경쟁이 서로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41)</sup>

둘째,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중국이 2009년부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문제를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동안 증강해 온 해군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근 해양영토분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매우 도발적이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을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해양법중재재판소(UNCLOS Arbitral Tribunal)에 회부한 데 대한 반발,<sup>42)</sup> 2014년 5월 초부터 두 달 반 동안 베트남 EEZ 내에서의 석유시추 강행,<sup>43)</sup> 그리고 최근에는 남사군도 지역에서 모래를 퍼 올려 매립한 8개 인공섬에 대해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EEZ를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에는 선박 접안시설과 활주로를 건설하고 여기에 군사력을 주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44)</sup> 앞으로도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자제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양영토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 당사국 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해 왔다. 1950년 한국전쟁 개입, 1954년과 1958년 대만포격 사건, 1962년 중인전쟁, 1969년 중소국경분쟁, 그리고 1979년 중월전쟁 사례가 그것이다. 심지어는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슴지 않고 먼저 군사적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만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베트남 혹은 필리핀을 상대로 '제한적'인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응 여부와 대응 수위,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과 함께 아태지역 영향력의 지속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41) Franz-Stefan Gady, "Surprise: Japan Sees China as Its Main National Security Threat," *The Diplomat*, July 21, 2015.

4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菲律賓共和國所提南海仲裁案管轄問題的立場文件," 2014. 12. 7. [http://www.mfa.gov.cn/mfa\\_chn/zyxw\\_602251/t1217143.shtml](http://www.mfa.gov.cn/mfa_chn/zyxw_602251/t1217143.shtml)

43) "Maritime Disputes Heats Up between China, Philippines and Vietnam," DW, May 7, 2014, <http://www.dw.de/maritime-disputes-heat-up-between-china-philippines-and-veitnam>

44) Jane Perlez, "China Building Aircraft Runway in Disputed Spratly Island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16, 2015; Joel Cuinto, "China Builds Artificial Islands in South China Sea," *Global Economics*, June 19, 2014.

## 2.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

향후 중국의 해군력 증가가 지역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냉전기와 달리 국가들은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록 안보적 측면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복합적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지역 국가들이 해양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주요 국가들 간에 해군군비통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해군군비통제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국가들 간 해군력 증가를 제어하는 것이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22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은 해양군비경쟁을 완화하고자 ‘워싱턴 해군회의(Washington Conference)’를 갖고 국가별 함정 수 및 톤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비록 워싱턴 해군회의는 일부 국가들의 위반으로 결렬되었지만 약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때보다 더 나은 정보 및 감시체계, 의사소통 채널, 그리고 협상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이 ‘21세기 해군군비통제회의’를 논의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상호 군사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과도한 군사력 증가를 제어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국가들 간에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분야는 제쳐두되 이해를 같이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 증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미중 간에 대립하고 있는 ‘항해의 자유’ 원칙에 대해 양국은 협의할 수 있다. 즉, 양국은 항해의 자유 원칙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제공역(global common)’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sup>45)</sup> 우선 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하는 가운데, 인도양 및 아덴만 등의 해역에서 해운을 위협하는 해적, 인신매매, 테러리즘 등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협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만일

45) Zhu Feng, “Are China and the US Headed for Confrontation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Asia*, Vol. 10, No. 4 (Winter 2015), p.62.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을 주도하기 어렵다면, 먼저 한국, 일본,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협력을 주도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안보레짐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회의체에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별도의 ‘외교+국방 형태의 포럼’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 포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양영토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긴장이 고조 되더라도 먼저 무력을 사용한 측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분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둘째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비록 중국이 이에 불응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정부 간의 논의가 어렵다면 우선 학자들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안보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고 협의하며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V. 결론

21세기 해양공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으로 뛰어들기 전까지 해양은 완충공간이었다. 중국과 미국의 영향권은 분리되어 있었고, 중국은 동아시아 대륙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미국은 주로 동아시아 해양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sup>46)</sup> 그러나 이제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아시아 해양공간은 미중 간 세력 확대를 위한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2010년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지되어 온 비록 불안하지만 평화공존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양안보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몇 가지 방안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 다소 이상적인 면이 있다. 비록 협력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해군군비통제협상, 다자해양안보협력, 그리고 해양안보레짐 가운데 하나라도 성사되어 제도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

46) Robert S. Ross, “The Revival of Geopolitics in East Asia: Why and How?” *Global Asia*, Vol. 9, No. 3 (Fall 2014), pp.9-10.

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역안보협력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보다 냉철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국의 북해함대 및 동해함대의 전력이 어느 수준이고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야 하며, 그래서 북한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고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대립 혹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두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혹은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우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한중 간의 EEZ 획정 논의가 결렬되어 이어도 문제를 놓고 한중 해군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의 해양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해양은 국가안보와 국가번영 모두에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통일 후를 상정할 때 해양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록 짧은 기간 내에 먼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요원할 지라도 주변국과의 해양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 된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닌 중심국으로, 그리고 현재와 같은 강소국을 넘어 ‘강국(moderate power)’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강국 부상의 전제는 반드시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강국으로의 부상을 위해 해군력의 증강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문

- 박창희, “중국의 영토분쟁 정책,” 『2013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년 4월, pp.272-273.
- , 『중국의 전략문화 : 전통과 근대의 모순과 부조화』(파주 : 한울, 2015), pp.104-111.
- 백경남, 『국제관계사』(서울 : 법지사, 1987), pp.94-103.
- 이춘근, “지정학적 부활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Strategy 21』, Vol. 18, No. 1 (Spring 2015).
- 황병무, 『신중국군사론』(서울 : 법문사, 1995), p.154.

### 2. 중문

- 『人民日報』, 2014. 4. 9.
- 方曄雲, “外交部陪長王毅答記者問,” 『人民網』, 2014. 3. 8. <http://lianghai.people.com.cn/>
- 『新華網』, 2013年 1月 28日; 『연합뉴스』, 2013. 8. 1.
- “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開幕 胡錦濤作報告,” 『人民網』, 2012. 11. 8.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3年 4月.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年 5月.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菲律賓共和國所提南海仲裁案管轄權問題的立場文件,” 2014. 12. 7. [http://www.mfa.gov.cn/mfa\\_chn/zyxw\\_602251/t1217143.shtml](http://www.mfa.gov.cn/mfa_chn/zyxw_602251/t1217143.shtml)

### 3. 영문

- Bedi, Rahul, “India Shores Up Island Defenses to Counter China Buildup,” Jane’s Defense Industry, February 11, 2010. <http://jdet.janes.com/JDIC/JDET/>
- Bernard D. Cole, “The PLA Navy and ‘Active Defense,’” Stephen Flanagan et al., eds.,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China in Transition* (Washington, D.C.: NDU Press, 2003).
- Bingguo, Dai, “The Core Interes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Digital Times*, August 7, 2009.

- Cheung, Tai Ming, "Growth of Chinese Naval Power: Priorities, Goals, Missions and Regional Implications," *Pacific Strategic Papers*, No. 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 "Chronology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Xinhuanet*, March 28, 2015.
- Crowl, Philip A., "Alfred Thayer Mahan: The Naval Historian,"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Cuinto, Joel, "China Builds Artificial Islands in South China Sea," *Global Economics*, June 19, 2014.
- David Tweed, "China's Clandestine Submarine Caves Extend Xi's Naval Reach," *Bloomberg*, October 31, 2014.
- Erickson, Andrew S. and Lyle J. Goldstein, "China's Future Nuclear Submarine Force: Insights from Chinese Writing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0, No. 1 (Winter 2007).
- Feng, Zhu, "Are China and the US Headed for Confrontation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Asia*, Vol. 10, No. 4 (Winter 2015).
- Ford, Peter, "Decoding Xi Jinping's 'China Drea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26, 2013.
- Franz-Stefan Gady, "Surprise: Japan Sees China as Its Main National Security Threat," *The Diplomat*, July 21, 2015.
- Fravel, M. Taylor, *Strong Borders Secure China: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Godwin, Paul H. B., "From Continent to Periphery: PLA Doctrine, Strategy and Capabilities Towards 2000," David Shambaugh and Richard H. Yang, eds., *China's Military in Trans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7).
- Ji, You, *The Armed Forces of China* (New York: I.B.Tauris, 1999).
- Mahan, Alfred T.,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 (Boston, 1906).
-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 "Maritime Disputes Heats Up between China, Philippines and Vietnam," DW, May 7, 2014, <http://www.dw.de/maritime-disputes-heat-up-between-china-philippines-and-veitnam>
- O'Rourke, Ronald,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31, 2016.
- Pehrson, Christopher J.,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Carlisle: SSI, 2006).
- Perlez, Jane “China Building Aircraft Runway in Disputed Spratly Island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16, 2015.
- Ross, Robert S., “The Revival of Geopolitics in East Asia: Why and How?” *Global Asia*, Vol. 9, No. 3 (Fall 2014).
-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of the World System*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pp.13).
- Shambaugh, David,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up>st</sup> Century*, September 9, 2015.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May 2016.
- Wishnick, Elizabeth, “Russia and China: Brothers Again?” *Asian Survey*, Vol. 41, No. 5 (2001).
- Wong, Edward, “China Hedges Over Whether South China Sea Is a ‘Core Interest’ Worth War,” *The New York Times*, March 30, 2011.

Abstract

## Chinese Naval Power Build-up and Measures for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Park Chang-Hee\*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PLAN's capabilities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suggests some measures fo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China has begun to focus its national strategy more on 'rising as a new maritime power' since the 18th Party Convention in November 2012. Chinese new strategy aims at building a strong navy, contributing economic prosperity and national security, and thus elevating its prestige in international society. Most of all, building a strong navy is the foremost task at this time, and that is why the PLAN has the priority for military modernization. Chinese new maritime strategy could cause naval arms race in East Asia and aggravat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ncerned parties. It is the time for regional states to discuss some measures to build confidence, such as arms control of naval weapons,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mechanism, and foundation of regional security regime, thus enhancing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Key Words : PLA Navy, Maritime Security, Maritime Cooperati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Regional Security Regime**

논문접수 : 2016년 7월 26일 | 논문심사 : 2016년 10월 14일 | 게재확정 : 2016년 10월 28일

---

\* Professor, Military Strategy Departmen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